

# 전남도, '호남권 통일+센터' 건립...내년 준공

### 80억 들여 옛 목포경찰서 부지에 남북교류협력·탈북민 지원 등 추진 인천 시범센터 개소 후 시도권 최초

전남도는 새로운 남북화해·협력의 교두보가 될 '호남권 통일+센터' 건립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호남권 통일+센터'는 지난해 5월 통일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2018년 인천 시범센터 개소 이후 시도권역에 처음 건립하게 됐다.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강화해 남북 교류협력, 통일교육, 탈북민 지원, 평화 통일 체편관 운영 등 다양한 통일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할 전망이다. 국비 3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옛 목포경찰서 부지인 목포 용해동에 연면적 2000㎡ 규모로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을 상반기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

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도·시군·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 협의체인 (사)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하고,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대북 의약품 지원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왔다. 앞으로 센터 준공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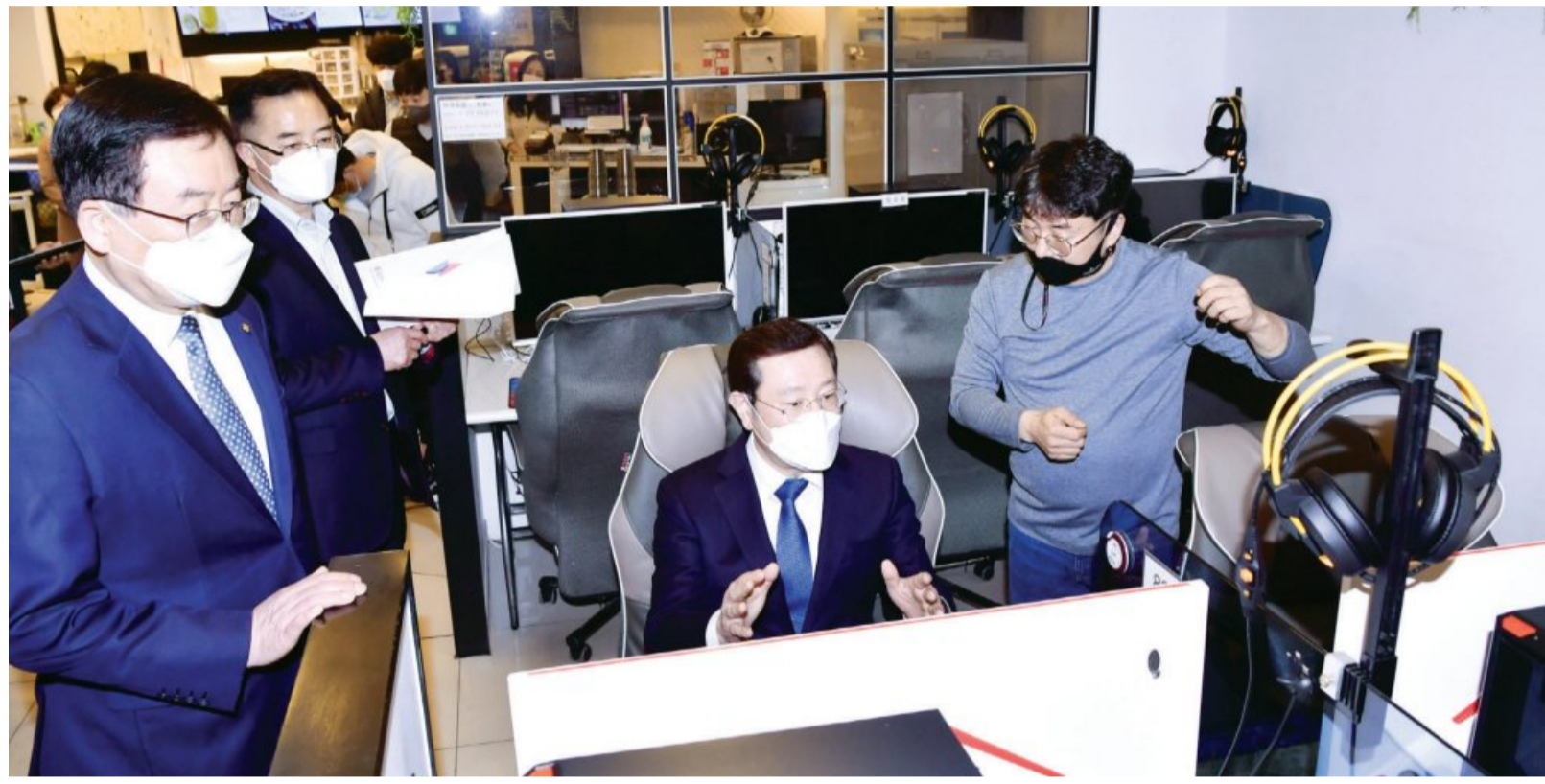
영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은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이라며 "전남의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얼어붙은 한반도에 온기를 되살릴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호남권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16억 들여 지적재조사 이웃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

광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16억 원을 투입해 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5개 지구 11개 지구 6551필지 367만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한다. 시는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도 무료로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2012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4개 지구, 2만2540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해 36개 지구, 1만5412필지의 사업을 완료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방조제 개보수사업 전남도, 18개 지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추진 대상지로 전남도내에서 전체 31개 지구의 절반이 넘는 18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지역 대상지는 국가관리 2곳, 지방관리 16곳으로, 국비 154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현재 고흥 등 10개 시·군, 39개 지구에 대해 799억원을 들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선정된 18개 지구 271억원을 포함하면 총 107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관리 방조제 2개 지구는 ▲완도 관산 ▲신안 도락 지구다. 지방관리 방조제 16개 지구는 ▲여수 옥적 ▲고흥 월하, 대흥, 옥강 ▲해남 서상2 ▲진도 보전 ▲신안 옥지1, 삼두1, 송림전2, 조삼2, 소근, 흥애불2, 척석남, 미연안, 마진남촌, 신촌1, 북동1, 상수치상 지구다. 올해까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문화시설 현장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이 9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전년대 후문 일대 문화시설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친환경 수소차 충전소 전남도, 4곳 선정

2021년 환경부와 국토부의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서 전남도내에서는 목포 상동 E1 유역에 너지, 여수 둔덕동 S-oil LPG충전소, 광양 성황동 S-oil충전소, 영광 칠산대교 스마트 복합터 등 4곳이 선정됐다. 국비 15억원이 지원되며, 1개소당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함평, 고흥까지 총 6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여수와 장성 등 2곳에선 이미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수소충전소 민간업체에는 운영비가 국비로 보조된다. 수요 부족에 따른 영업손실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돼 충전소 보급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산업단지외와 항만 등에 수소트럭을 보급하기 위해 광양항 배후부지에 화물용 수소트럭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전남도는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올해 3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도민에게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37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27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전남도는 또 도 차원의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을 세워 오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와 지방도 휴게소, 산업단지,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 3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4만3000대 보급해 온실가스 8만 6000t을 감축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예능영재 키움사업 확대...120명 선발 광주시, '버려야 할 일' 업무보고 눈길

### 29일까지 참여자 모집

전남도는 민선7기 브랜드 사업인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술 분야 청소년의 재능 계발을 위해 '예능영재 키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예능영재 키움'은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이 지역 여건이나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술 분야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전남예술고, 한국창의예술고, 진도국악고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해 5월부터 8개월간 재능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광양에 있는 한국창의예술고가 추가로 참여해 동부권 청소년의 참여 폭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서류심사와 실기, 면접시험을 통해 120명을 선발한다. 대상자가 희망하는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교사나 전공실기 지도강사로부터 1대 1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교습을 받는다. 방학 기간에는 1주 집중교습과 공연·전시회 관람 등 체험학습을 함께 실시하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키울 성과발표회도 연다. 참여를 바라는 청소년은 (재)전남평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 3에서 중 3 학생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출생한 학교밖 청소년 가운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학 중인 학교 교사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예능영재 키움 사업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중 30여 명이 사교육 없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사업 첫해인 2017년에 참여했던 중학교 3학년 2명은 꾸준히 성장해 올해 대학교 음악학과에 합격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종이없는 회의' 등 보고

9일 열린 광주시 화요간부회의는 기존의 주요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버려야 할 일'을 보고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용섭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AI광주담에 급변하는 시대 흐름으로 불필요해지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업무를 과감히 없애고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혁신소통기획관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 수요 증가로 오프라인 강연이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지식공유플랫폼인 '아리리리'의 콘텐츠 촬영 및 제작을 종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광주혁신참여단'의 혁신제안과 '바로소통광주'의 정책제안의 참여방법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바로소통광주로 일원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일일행사 작성 등 관례적 업무를 폐지하고 앱을 이용한 실시간 일정관리 및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페이퍼리스(paperless) 사무실을 지향해 탄소 중립 실현에도 일조하겠다고 계획도 공유했다. 여성가족국은 주요 자료를 국 공유디스크에 실시간 업로드 해 과도한 자료요구를 줄이고 작성시간을 절감하겠다고 제안했다. 총무과는 '종이없는 회의'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며, 이날 화요간부회의도 별도의 회의자료 출력없이 노트북을 활용하는 스마트회의로 진행했다. 이용섭 이날 회의에서 광주 미래 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선 공약 발굴 등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대선 공약 발굴을 통해 광주의 미래 도약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대광새마을금고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